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연구*

임연희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행정·학계·경제·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KEYWORDS 지역신문, 기자, 경력 이동, 노동시장, 직업정체성

* 이 논문은 2016년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 lyh3056@hanmail.net

1. 문제제기

기자들이 언론현장을 떠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는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등졌다면 2000년 이후에는 보수·복지 미흡, 업무 증가 같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미래비전 부재, 사회적 영향력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짐을 싸고 있다. 기자의 3명 중 1명은 타 언론사나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30~40대에 이미 언론계를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다. 신문기자, 특히 지역일간지 기자들의 이직 의향이 높고¹⁾ 자발적으로 언론을 떠난 기자들은 신문(통신)과 방송 등 언론으로의 이직(33.2%)보다 다른 직업(66.8%)을 찾아 더 많이 이동했다(정대필, 2008, 23~24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계는 평기자에서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이 강했지만 뉴미디어의 발달과 신문산업의 쇠퇴로 외부노동시장으로 분화하고 있다(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61쪽).

하지만 기자들이 언론을 떠나는 이유를 단순한 시대변화로만 보기는 어렵겠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언론 밖으로 눈을 돌리는 기자들이 늘고 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정치인 선거캠프로 이동하는 기자도 많아져 어떤 기자가 어느 캠프로 갔는지가 기삿거리가 될 정도다.²⁾ 언론이 본연의 사명보다 상업적 이익을 앞세울 때, 소유주가 언론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기자들은 신문을 떠났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홍보비 지출이 많을수록 언론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게재 되었으며(이희성, 2013, 319쪽) 지방정부와 지역언론 사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와 언론의 수익극대화 전략을 거부하는 기자에게 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해 기자가 해당 언론을 떠난(이승선, 2014, 523쪽)사례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자들이 신문을 떠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왜 이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신문과 방송〉, 〈관혼저널〉 등을 통해 일부 중앙언론 기자들이 정치계·학계·행정계·경제계 등으로 이동했음을 접하지만 수습으로 입사한 기자가 차장·부장·국장 등 내부 승진과정 가운데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직

1) 전국 언론사 소속기자 1,527명 중 다른 언론사로 옮길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문기자가 33.0%, 방송사 19.0%, 뉴스통신사 29.5%, 인터넷언론사 46.5%였는데 신문기자 중에서도 지역일간지 기자(35.3%)가 스포츠일간지(40.0%) 다음으로 이직 의향이 높았다(오슬기·배정근·김위근, 2013, 187~188쪽).

2) 기자 출신 지방선거 캠프 대변인 누가 있나. 〈디트뉴스24〉, 2014.3.17.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60804>

했는지의 구체적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기자들의 경력 이동이 타 언론사 기자직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유학, 대학원 진학, 교수 등으로 진로를 틀고 있어³⁾ 이동의 경로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기자들의 이직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는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중앙일간지와 방송에 치우쳐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연구는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대전에 본사를 두고 대전·세종·충남북을 권역으로 발행되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3개 신문 기자들이 퇴직 후 어떻게 경력 이동을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원인은 무엇이며 이동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신문 소유주와 노동조합 같은 내부 구성원을 비롯해 정치권·독자·광고주 등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이것이 경력 이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하다.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이라는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경력 이동은 직업에 대한 가치 변화는 물론 직업정체성, 노동여건의 변화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할 것이다. 전통 저널리즘이 언론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분화하는지에 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이 연구는 이동에 얽힌 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의미도 있겠다.

2. 이론적 논의

1) 경력 이동에 관한 기존 논의

경력(career)이란 노동자들이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단계적으로 거치는 직장이나 직업 활동의 속성들(임영호, 2008, 327쪽)로 경력 이동은 채용, 승진, 이직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다(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65쪽). 윌렌스키(Wilensky, 1961)는 경력을 “권위의 위계에 따라 배열된 관련된 직업들의 연속”(p. 523)으로 정의했으며 파발코(Pavalko, 1988)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직업에서 겪는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변화”(p. 124)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때 경력은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업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언론인들의 특성이나 자질이 언론의 생산물이라

3) 한국기자협회보 (2005. 4. 6). 저널리스트들의 정상적 이직(移職)을 위하여. URL: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9320>

고 할 수 있는 의견과 뉴스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62쪽)는 점에서 기자들에 대한 경력 이동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직업으로서의 언론인을 다룬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1970~1980년대 시작됐는데 존스톤과 슬로스키, 그리고 보우만(Johnston, Slawski, & Bowman, 1976)은 미국 언론인에 대한 연구에서 '입직(entry)'형태와 직업 이동과 관련한 사회적 특징들을 관찰했다. 트레이(Trayes, 1976)와 슈웨드(Schwed, 1981)는 일간신문 내에서의 채용과 승진, 근무기간 같은 것들을 출신학교, 직급 등 개인적인 변수들과 연결해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웨버와 윌호이트(Weaver & Wilhoit, 1991)는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환경과 만족도, 교육 훈련, 전문직 윤리와 가치관 등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을 추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비해 국내 언론인에 관한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기자직 전반에 대한 조사 작업 중심으로 <한국신문방송연감>은 언론인들의 신상 프로파일을 기록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자 의식조사>, <한국의 언론인>, <한국언론연감> 같은 분석서와 함께 기자들의 직업윤리, 만족도, 가치관, 취재시스템, 의식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정리하면 첫째, 언론사 내부에서의 승진과 동종업계로의 이직 형태 연구이며 두 번째는 기자들의 이직 원인을 탐색한 연구, 세 번째는 직업 만족도와 직업 정체성에 관한 연구다.

첫째, 기자들의 이직 형태 연구에서는 언론인의 경력 이동이 대부분 공채로 들어와 기업내부 이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업 간 혹은 타 직업으로의 이동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신연숙, 2009, 임영호, 2008; 임영호·김은미, 2006; 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임현선, 2009; 장하용, 2004; 최낙진, 2007; 최이숙, 2009). 신문사, 특히 중앙일간지의 경우 공채로 들어와 평기자에서 차장, 부장, 부국장, 편집 고위 간부(업무직 고위간부, 위원·전문기자)로 순환보직(신연숙, 2009, 105쪽)하다가 대략 15년 정도를 기점으로 취재현장을 떠났다(장하용, 2004, 36쪽). 외부 인력의 영입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전문분야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신생사일수록 외부 경력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래된 언론사에서는 비교적 낮았다(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82쪽). 서울에서의 업종이나 매체 유형 간 이동이 지역 간(서울과 지방) 이동보다 훨씬 활발했으며 개인의 첫 직장과 첫 부서가 이후의 경력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임영호, 2004, 176~177쪽)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경력 이동과 관련한 두 번째 연구 흐름은 신문산업의 구조변화를 진단하며

이직 원인을 탐색한 연구들이다(권혁남, 1994; 김경모·신의경, 2013; 김남석, 2001; 김세은, 2010; 김종찬, 2003; 이상기, 2008; 장행훈, 2003; 정대필, 2008). 기자들이 기자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힘든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으며 취재보도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자기계발 시간 부족으로 기자 3명 중 1명은 이직을 희망했다(배정근, 2012, 21쪽). 열악한 보수 및 복지 미흡도 이직 원인(정대필, 2008, 28쪽)이었으며 신문의 제작 방침이나 내용이 정직한 언론인으로서 묵과하기 어려워 양심의 가책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신문사를 떠났다(장행훈, 2003, 67쪽). 지역신문의 경영난 속에서 기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광고와 판매 압박으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권혁남, 1994, 20쪽).

세 번째는 기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다(김성재, 2005; 김세은, 2003; 김창희, 2002; 남궁협, 2002; 박진우·송현주, 2012; 배정근, 2012; 양승혜, 2006; 윤철수, 2007; 이상기, 2008). 종사자 수 급감, 편집국 부서별 배치 인력의 변화, 근무환경 변화로 기자들의 직업 정체성이 약화됐으며(윤철수, 2007, 4~6쪽) 특히 지역신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의 악순환 속에서 사주의 왜곡된 신문발행 목적이 편집의 자율성과 기자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김성재, 2005, 133쪽). 대전지역 신문기자들 역시 영세한 자본 규모와 극심한 부채로 경영 압박이 심각했으며 근무여건에서의 만족도 또한 낮았다(김창희, 2002, 58쪽). 박진우와 송현주(2012, 64쪽)는 기자들의 정체성 혼란과 부적응성을 ‘체념, 순응, 그리고 최적화’라는 말로 압축했는데, 언론의 객관성과 공공성의 전문직 가치가 자사 이기주의의 장벽 앞에서 신뢰도 하락으로 좌초돼 직업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두드러졌다.

최근의 연구로 최석현과 안동환(2012, 84쪽)은 언론 내부노동시장을 유지시키는 한 축인 기업숙련체제가 약화되고 대형신문사나 증소형 신문사, 방송, 인터넷 언론 같은 다른 산업과의 치열한 생산성 경쟁 속에서 저널리즘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내부노동시장 내에서나마 유지되던 언론인의 전문직적 정체성은 더욱 약화돼 결과적으로 타 직업으로의 이동을 강화시켜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자체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견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언론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해 언론인의 경력 이동과 직업정체성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2) 노동시장이론

기자들의 직업이동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 노동시장 개념을 사용하려고 한다. 경제학, 특히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을 본격 연구대상으로 삼지만 노동시장 연구가 경제학의 전유물은 아니며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정치학에서도 사용됐

다. 사회학자들은 시장의 사회적 구조화에 주목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해명하는 연구(정이환, 2013, 94쪽)를 해왔는데, 이 연구도 노동시장의 세부 쟁점보다는 사회학적 틀 속에서 언론산업에 투영되는 언론노동시장의 현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쟁을 통해 채용·승진·이직하는데, 이 공간이 노동시장이다(최석현·안동환, 2012, 84쪽). 노동시장의 개념은 경제학적 노동시장과 사회과학적 노동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노동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거래된다. 여기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노동의 거래와 가격이 형성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거래대상인 노동이 균질하지 않고 지리적·사회적 요인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 역시 변형된 형태로 작동한다. 좀 더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회과학적 노동시장인데, 사회적 요인에 따라 노동력의 진입과 이동 기회가 불균등하게 나타남으로써 여러 이질적인 부분노동시장들로 분화한다는 것이다. 내부노동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임영호·김은미, 2006, 366쪽).

내부노동시장이란론은 되린저와 피오레(Doeringer & Piore, 1971)를 시작으로 발전했는데, 내부노동시장은 기업의 생산전략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기업 단독 혹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된 규칙에 의해 노동자의 배치, 전환, 훈련, 승진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과 구별된다. 내부노동시장은 피고용인들이 제한된 입직(入職)과정을 거친 후 구조화된 사다리를 따라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숙련함으로써 임금과 지위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66쪽). 반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기업 내에서 경력발전을 위한 기회가 적은 외부노동시장은 개인의 특별한 숙련 전략 없이는 계속해서 일반기술 혹은 저기술을 보유한 차별화된 경력 발전의 길을 가게 된다. 두 노동시장은 기술의 일반화 수준에 따라 차이(정태인, 1996, 172쪽)를 보이는데 같은 내부노동시장이라도 전문직 내부노동시장은 입직 전부터 전문기술 숙련이 시작되고 숙련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기술숙련은 기업주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업군 내 이동을 통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경력발전을 한다(류기락, 2009, 37쪽).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고용불안 심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성과주의 도입 등 변화를 겪어 외환위기 이전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IMF를 계기로 고용체제가 와해되거나 크게 약화되었다(류기락, 2009, 송호근, 2002; 정이환·전병유, 2001).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지속되는 것과 달리 사무직 근로자의 내부노동시장은 축소돼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임금인상 경향이 약해졌다(정이환·전병유, 2001, 178쪽). 언론노동시장 역시 평기자에서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이 약화돼 IMF 외환위기와 함께 이미 대량해고를 경험했으며 현재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내부노동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 2년 동안 전국 56개사 4만여 명의 언론종사자 가운데 21%인 8,500명이 언론사의 몸집 줄이기로 인해 퇴출당한 경험(반영환, 2001, 152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면, 전형적인 기업 내부노동시장적 특성을 보였던 언론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 간이나 산업 간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폐쇄적 구조가 점차 완화 되었으며 뉴미디어와 기술발달, 신문기업의 재정난 등으로 노동시장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승진 등을 통해 신문사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동종 업계로 이동하던 기자들이 정치계, 행정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으로 이직하는 게 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언론인의 경력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볼 것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노동시장이론에 입각해 지역신문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고 이동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언론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언론노동시장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기자들의 경력 이동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입처 등에 따라 어떤 형태로 얼마나 이뤄졌으며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원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전에 본사를 두고 20년 이상 정상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등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일간신문은 모두 8개로 이중 2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정상 발행되는 신문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이 세 곳이다. <대전일보>는 1950년 10월 3일 전시(戰時)뉴스를 전하는 전단형 속보판 형태로 만들어져 1951년 9월 12일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초대 대표이사 겸 사장은 임지호였으나 1963년 남정섭이 경영권을 확보한 뒤 1976년 아들 남재두, 2011년 손녀 남상현으로 경영권이 승계됐다. 1951년 8월 24일 창간한 <중도일보>는 1973년 <대전일보>에 흡수·합병된 뒤 1988년 9월 1일 지령 7071호로 복간됐다. 초대 이응렬 후임으로 아들 이기창이 1991년 사장에 취임했지만 IMF 외환위기와 경영난으로 2003년 휴간했다가 신생 <충청매일신문> 김원식이 제호를 인수했다. 김원식은 2013년 회장으로 옮겼고 아들 김현수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1990년 6월 11일 <대전매일>로 창간한 <충청투데이>는 경영난을 겪게 되자 장례사업을 하던 정남진이 2001년 인수해 2005년 1월 현재의 제호로 변경했다.

퇴직 기자들이 이동한 직업의 공간적 배경은 신문의 발행권역과 같은 대전·세종·충남북을 중심으로 다뤘다. 다만, 중앙일간지로 이동한 경우 본사가 있는 서울 근무자뿐 아니라 주재기자 형태로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대변인 등으로 국회가 있는 서울과 지역의 의원사무실을 교차 근무하는 사람들도 연구대상에 넣었으며 행정계로 이동한 기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외에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근무자를 모두 포함했다.

분석 시기는 2000년~2014년으로 잡았는데 2000년 이후 지역 신문시장에 다양한 변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변화를 요약하자면 첫째 노사 갈등과 경영난, 휴간, 인터넷신문 창간, 종합편성채널 출범 같은 신문시장에서의 변화이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 출범으로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기자들이 정치인 선거캠프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세 번째는 대전에 정부청사가 들어서고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됐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하는 등 지역적 환경 변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전국적 상황이라면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언론인 수요는 대전만의 특수상황으로 볼 수 있다.

기자들의 경력 이동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입사시기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이동경로를 먼저 파악해야 했는데 <한국신문방송연감>과 <한국언론인명사전>, <전국언론인명록>, 각 신문의 '사고(社告)'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추출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퇴직자 수는 <대전일보> 117명, <중도일보> 109명, <충청투데이> 131명 등 357명이었다. 신문시

표 1. 연도 및 시기별 퇴직기자 수

시기	연도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연도 합	비고
1시기	2000	9	8	5	22	• 16대 국회의원 선거 • 대덕밸리 선포
	2001	4	6	11	21	• <충청투데이(옛 대전매일)> 노사 갈등 •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 창간
	2002	2	2	7	11	• 3회 지방선거
2시기	2003	7	32	7	46	• 중도일보 휴간 및 <충청매일신문> 과 합병
	2004	4	6	5	15	•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5	8	3	9	20	•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3시기	2006	11	9	9	29	• 4회 지방선거
	2007	9	8	11	28	
	2008	10	3	4	17	• 18대 국회의원 선거
	2009	9	4	11	24	
	2010	9	3	25	37	• <충청투데이> 노사갈등 22명 퇴사 • <금강일보> 창간 • 5회 지방선거
4시기	2011	14	11	8	33	• <대전일보> 기자 8명 <디트뉴스24>로 이동 • 종합편성채널 출범
	2012	9	8	4	21	• 19대 국회의원 선거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정부세종청사 개청
5시기	2013	8	3	11	22	
	2014	4	3	4	11	• 6회 지방선거
계		117	109	131	357	

장의 변화에 따라 퇴직 시기를 5단계로 구분했는데 1시기는 2000년~2002년, 2시기 2003년~2005년, 3시기 2006년~2010년, 4시기 2011년~2012년, 5시기 2013년~2014년이다. 시기 구분에는 경영난, 노사갈등, 휴간 등 내부요인과 지방선거, 정부청사 개청, 종합편성채널 출범 같은 외부요인들을 포함했다. 각 신문의 퇴직자⁴⁾ 수를 연도 및 시기별로 구

4) 퇴직자에는 정년 및 자발적 퇴사자를 모두 포함했으며 기자출신 논설위원은 연구대상에 포함했지만 세종과 충남북 주재기자들은 제외시켰다. 이유는 지역신문 주재기자의 경우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본사기자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사와의 인사교류 없이 지역에서 불박이 근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기자가 지역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본사로 들어오는 등 인사 교류한 경우는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표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순번	성별	연령	기자경력	퇴직 시 직급	주요 출입처	현재 직업
A	남	58	25	국장	행정	인터넷신문 논설위원
B	여	37	12	기자	문화	인터넷신문 기자
C	남	41	10	차장	교육	인터넷신문 팀장
D	남	53	23	부국장	경제	뉴스통신사 부장
E	남	58	27	국장	정치	인터넷신문 발행인
F	남	54	17	부장	정치	정당 관계자
G	남	45	13	차장	행정	국회의원 보좌관
H	남	52	19	부장	정치	국회의원 보좌관
I	남	49	16	기자	정치	국회의원 보좌관
J	남	32	4	기자	정치	정당 관계자
K	여	40	8	기자	문화	공무원
L	남	51	14	부장	행정	공무원
M	남	42	5	기자	행정	공무원
N	남	47	11	기자	정치	공무원
O	남	48	15	차장	교육	대학 관계자
P	남	45	9	차장	교육	대학 교수
Q	남	30	2	기자	행정	교사
R	남	36	7	기자	경제	기업 홍보팀장
S	남	39	8	기자	경제	기업 연구원
T	여	55	28	국장	문화	문화단체 임원
U	여	38	3	기자	교육	시민운동가
V	남	53	9	기자	문화	화가
W	남	48	18	차장	경제	회사 대표
X	남	29	3	기자	사회	회사 대표
Y	남	58	34	국장	문화	프리랜서 작가
Z	남	34	5	기자	체육	프리랜서 작가
AA	여	43	13	기자	편집	지역 일간신문
BB	남	36	8	기자	사회	중앙 일간신문
CC	여	29	4	기자	편집	무직

분하면 <표 1>과 같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의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풍부

한 연구결과와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데 노력했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20일~9월 4일 보름간과 11월 2일~6일 닷새 동안 총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자우편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연구자가 직접 만나 인쇄된 설문지로 답을 받았다. 심층인터뷰는 언론사별, 직급별, 연령별, 출입처별로 29명을 선정해 1차 2015년 9월 1일~15일, 2차 11월 6일~9일 진행했다. <표 2>는 심층인터뷰 대상자 프로파일이다.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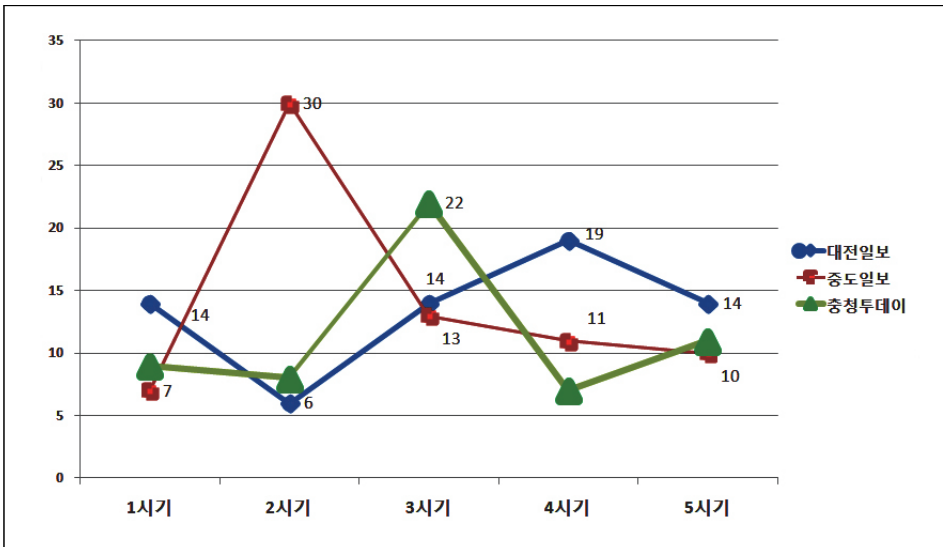
1) 출신지역, 출신학교 및 주 출입처

2000년~2014년 3개 신문을 퇴직한 기자는 모두 357명인데 이 중에서 195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았다. 신문별로는 <대전일보> 67명(34.4%), <중도일보> 71명(36.4%), <충청투데이>가 57명(29.2%)이었으며 남성 155명(79.5%), 여성 40명(20.5%)이었다. 응답자의 31.3%(61명)는 첫 입사한 종이신문을 5~10년 만에 퇴사했으며 5년이 안 돼 퇴직한 기자도 25.2%(49명)였다. 10~15년 미만은 16.4%(32명), 15~20년 미만 14.9%(29명), 20~25년 미만 5.6%(11명)였다. 정년퇴직한 사람은 4.1%인 8명에 불과했으며 입사 1년이 안 돼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6명(3.1%)이었다. 이들이 첫 종이신문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이었으며 총 종이신문 재직기간은 평균 16년 5개월로 전체 응답자의 82.6%가 20년이 안 돼 종이신문을 떠났다.⁵⁾ 장하용(2004, 56쪽)은 중앙일간지 기자들의 경우 순환보직을 거쳐 평균 15년 후 일선 취재현장을 떠나지만 간부나 임원 등 내부승진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 기자들은 첫 입사한 신문에서 평균 10년 4개월, 전체 16년 5개월에는 아예 종이신문을 떠났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언론노동시장의 폐쇄적 특성이 2000년 이후 대폭 약화됨으로써 기자들이 외부로 빠르게 경력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입사 전 신문과 기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자가 되어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은 보수로 생활하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Q기자)는 현실적 고민과 “신문사에 남아 버텨도 타 직종에 비해 정년이 5~10년 짧은 데다 이마저도 보장이 어려운데 왜 젊을 때 이직을 고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Y기자)는 후회도 있었다. “종이신문에서 부장 등 데스크를 맡기 시작하면 취

5) 종이신문 전체 재직기간을 묻는 질문에 6명(3.1%)은 입사 1년이 안 돼 퇴사했고 1년~5년 미만 19.0%(37명), 10년~15년 미만 28.2%(55명)였다.

그림 1. 기자들의 퇴사 시기



재현장에 나가기 힘들뿐 아니라 이직 때 직업선택 폭도 좁아지기 때문에 출입처를 가지고 잘 나갈 때 직장을 잡는 게 유리하다”(F기자)는 이야기였다.

이들의 퇴사 시기는 <그림 1> 처럼 3시기인 2006년~2010년이 가장 많았다.

3시기가 2006년~2010년으로 타 시기보다 다소 긴 점을 감안하면 2시기의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2003년 <중도일보>의 휴간으로 32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대전일보>는 지역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가 주간지 발간으로 인력을 충원하던 4시기(2011년~2012년) 19명이 이직했으며 <충청투데이>는 노사갈등을 겪은 3시기(2006년~2010년)의 퇴직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기자들은 평균 1.8회 직장을 옮겼는데 절반인 50.3%(98명)는 한 차례 직장을 옮겼고 29.7%(58명)는 2~3회, 10.8%(21명)는 4~5회, 4.1%(8명)는 6~7회 이직했으며 8회 이상 직장을 옮긴 사람도 2명(1.0%)이었다.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는 자신의 상품가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구직자가 보유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우리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연줄’인데 개인이 자신이 가진 사회적 연결망을 총동원해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링이나 연줄망, 연결망, 관계망, 인맥은 모두 사회자본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현택수 외, 1998, 64쪽).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연고요인 가운데 중요한 사회자본이 되는데 출신지역과 출신고교, 출신대학 등이 대표적

이다.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학력자본을 많이 소유한 기자들은 첫 출발선에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졌는데 출신대학은 언론인의 경력 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공보다 출신대학 중심의 학연이 주요한 연고요인으로 작용했다.

응답자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절반이 넘는 59%(115명)가 대전 출신이었고 충남·세종 17.9%(35명), 충북 15.4%(30명)였다. 3개 신문의 대전, 충남/세종, 충북 출신을 합하면 92.3%로 압도적이었으며 서울·경기·인천 출신은 7명(3.6%), 부산·경남북·울산 4명(2.1%), 광주·전남북 3명(1.5%), 강원은 1명(0.5%)에 불과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언론사일수록 해당 지역 출신자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타 지역과 외부 경력자 비율이 낮았는데(임영호, 2004, 176~177쪽) 이 연구에서도 지역에서 60년 이상 지속 발행된 <대전일보>의 대전출신 기자 비율(67.2%)이 <중도일보>의 54.9%, <충청투데이>의 54.4%보다 높았다.

100년 전통의 대전고등학교와 지역대표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역시 중요한 학맥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 195명 중 대전고 출신은 26명이었는데 비율로는 13.3%지만 3명 이하로 나온 '기타' 항목이 41.5%(81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고 출신 기자가 가장 많았다.⁶⁾ 대전고 출신은 <중도일보>가 가장 많은 13명, <대전일보>는 9명, <충청투데이>는 4명이었다. <충청투데이>의 대전고 출신기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창간시기가 1990년으로 타 신문보다 늦기 때문이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대전고 출신이 많은 것은 응답자 연령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대전고를 졸업한 <대전일보> 응답자 9명 중 4명의 연령이 50세 이상~59세 미만, 2명은 60세 이상이었다. 대전고를 졸업한 <중도일보> 출신 13명 가운데서는 9명이 50세 이상~59세 미만, 2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출신대학은 충남대가 전체의 40.0%(78명)로 월등히 많았으며 한남대 23명(11.8%), 목원대 16명(8.2%), 대전대 14명(7.2%), 배재대 12명(6.2%), 공주대 7명(3.6%), 충북대 7명(3.6%), 청주대 6명(3.1%), 한밭대 5명(2.6%), 고려대 4명(2.1%), 성균관대 4명(2.1%), 단국대 2명(1.0%) 순이었다. <대전일보>의 충남대 출신은 41.8%, <중도일보> 42.3%, <충청투데이> 35.1%로 3개 신문 모두 충남대 출신이 40% 안팎이었다. 학력은 연줄, 인맥 같은 사회자본으로 작용해 정계로 진출한 24명 중 42%인 10명이 충남대 출신이었다. 기자들은 인터뷰에서 "대전고 출신이라는 점이 정보습득과 취재원 관리에 유리하다"(D기자)고

6) 다음으로 충남고 18명(9.2%), 남대전고 13명(6.7%), 대신고 10명(5.1%), 보문고 10명(5.1%), 대성고 9명(4.6%), 서대전고 5명(2.6%), 대전여고 5명(2.6%), 충북고 5명(2.6%), 공주고 5명(2.6%), 홍성고 4명(2.1%), 호수둔여고 4명(2.1%)이었고 3명 이하로 나온 기타 학교가 81명(41.5%)이었다.

표 3. 퇴직 기자들의 주 출입처

(단위: 명(%))

구분	정치/행정	사회	경제/과학	교육/문화/체육	편집/교열/디자인/사진	지방	기타	전체
대전일보	27(40.3)	11(16.4)	8(11.9)	9(13.4)	2(3.0)	4(6.0)	6(9.0)	67(100.0)
중도일보	24(33.8)	9(12.7)	10(14.1)	8(11.3)	13(18.3)	5(7.0)	2(2.8)	71(100.0)
충청투데이	19(33.3)	5(8.8)	10(17.5)	11(19.3)	11(19.3)	1(1.8)	-	57(100.0)
계	70(35.9)	25(12.8)	28(14.4)	28(14.4)	26(13.3)	10(5.1)	8(4.1)	195(100.0)

했으며 “타 지역 출신으로서 대전고와 충남대 출신이 아니라는 게 취재활동과 사회생활에서 소외되는 이유”(J기자)도 되었다.

출입처 역시 경력 이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기자들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 출입처를 순환보직(B기자)하면서도 소위 ‘정·경·사(정치, 경제, 사회부)’ 부서출신이 조직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정치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중요성이 커져(A, E, F, J, M기자) 퇴직기자들의 주 출입처는 정치·행정이 35.9%로 월등히 많았다. 다음이 경제/과학(14.4%), 교육/문화/체육(14.4%), 편집/디자인/사진(13.3%), 사회(12.8%), 지방(5.1%), 기타(4.1%)였다. 기타로는 기획실, 논설실, 경영관리실, 서울주재, 여론독자부가 있었다. <표 3>은 3개 신문 퇴직 기자들의 주 출입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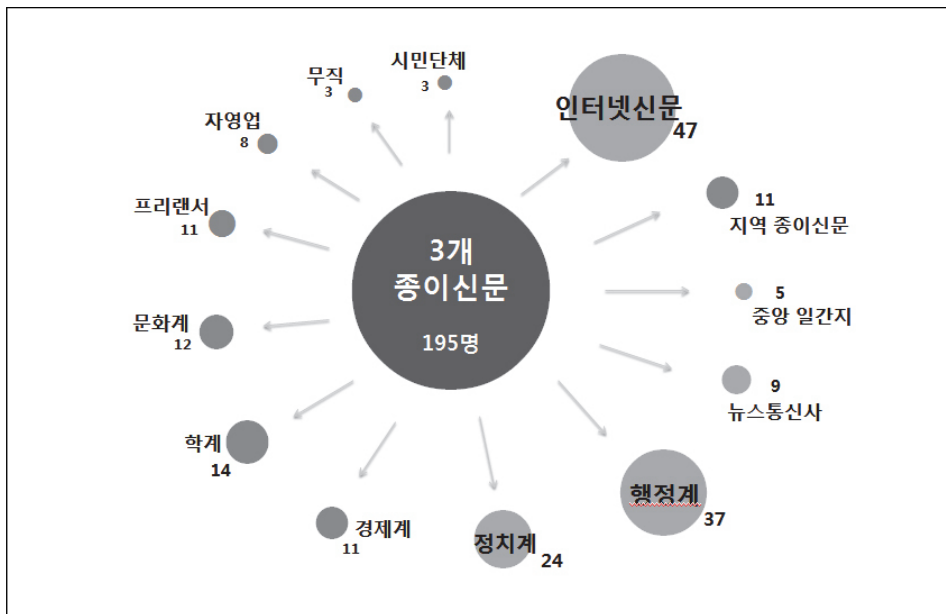
심층인터뷰에서 기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승진문’으로 꼽히는 출입처가 따로 있으며 기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출입처가 있다고 했다. 주 출입처가 경력 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줬음도 인정했다. “정치를 주로 맡다보니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워져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계기”(F, I기자)가 되었으며 “대학이나 기업을 담당하다가 그 쪽에 자리가 생겨 이동”(O, R기자)했다. 이들의 채용은 외형상 공개모집이었지만 내정에 의해 “후보자 시절 대변인을 하다가 단체장 당선 후 기관으로 들어가는 형식”(C, M기자)이었으며 대부분 “시·도지사나 구청장 등 선출직 단체장이 바뀌면 함께 물러났다”(F, N기자). 편집이나 디자인, 사진 분야의 일부 기자들은 출입처보다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경력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는데 “취재와 편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성이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만드는 데에 필요했다”(K, L, P기자)는 것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도정 홍보물 제작과 보도자료 작성 등을 전담하는 기자출신 공무원들이 계약을 연장하며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례도 있었다(B, F, K, L기자).

2) 기자들의 경력 이동 양상

기자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평기자가 40.5%(79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장 21.9%(41명), 차장 19%(37명), 부국장/국장 8.7%(17명), 팀장 5.1%(10명), 논설위원/주필 4.1%(8명), 기타 1.5%(3명) 순이었다. 3개 신문 모두 평기자의 퇴직이 많은 가운데 <중도일보>의 평기자 퇴직 비율이 45.1%로 <충청투데이>의 43.9%, <대전일보>의 32.8%에 비해 높았다. <대전일보>는 부장급(26.9%)의 퇴직이 평기자 다음으로 높았으며 <중도일보>는 평기자 다음으로 차장급(22.5%)이 많이 퇴직했다. <충청투데이>는 부장급(21.0%)과 차장급(19%)의 퇴직 비율이 비슷했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는 논설위원과 주필로 퇴직한 사람이 각각 4명씩 이었는데 이는 두 신문의 역사가 60년 이상으로 오래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타에는 발행인과 상무, 전무 같은 경영진이 3명 포함됐다. 기자들이 처음 입사한 신문에서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전형적인 기업 단위의 내부노동시장 구조였다면 평기자와 차장급 젊은 기자들의 경력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폐쇄적 노동시장 구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외에 정치·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의 경력 이동 양상에서도 언론의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0년~2014년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를 퇴사한 기자는 모두 357명이었는데 이중 3개 신문

그림 2. 퇴직기자들의 경력 이동 분포도



내에서 이동한 사람은 37명이었고 지역 종이신문에서 중앙일간지로 이동한 기자도 18명 있었다. 동종 종이신문으로는 16명이 이동했는데 이 중 11명(5.6%)은 지역 종이신문으로, 5명(2.6%)은 중앙일간지로 옮겼다. 인터넷신문은 47명(24.1%), 뉴스통신사 9명(4.6%), 행정계 37명(19.0%), 정계 24명(12.3%), 학계 14명(7.2%), 문화예술계 12명(6.2%), 프리랜서 11명(5.6%), 경제계 11명(5.6%), 개인사업(자영업) 8명(4.1%), 시민단체 3명(1.5%), 무직 3명(1.5%)이었다. <그림 2>는 설문에 응답한 3개 신문 퇴직 기자 195명의 경력 이동 분포도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인터넷신문으로 24.1%(47명)가 이직했다. 이들은 <디트뉴스24>를 비롯해 <굿모닝충청>, <브레이크뉴스> 등 지역 인터넷신문에서 대표,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로 활동했다. 종이신문에서 다른 종이신문으로 이동한 기자도 16명 있었는데 이 중 11명(5.6%)은 대전에 본사를 둔 다른 종이신문에서 근무했고 5명(2.6%)은 중앙일간지의 대전 주재기자였다. <연합뉴스>를 비롯해 <뉴시스>, <뉴스1>, <동양뉴스통신>⁷⁾ 등 뉴스통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9명(4.6%)이었는데 전국단위 뉴스통신사 소속이지만 지역 주재기자처럼 대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9.0%(37명)였으며 정치인, 정당 대변인, 보좌관 등 정계로 진출한 사람은 12.3%인 24명이었다. 대학교수 또는 교사를 하거나 연구소 근무, 대학원 공부 등 학계로 이직한 사람은 7.2%인 14명이었다.⁸⁾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12명(6.2%)이었는데 문학·그림·사진 등 전업 작가를 하거나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했다. 프리랜서는 특정기관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언론에 칼럼과 기고 등을 신거나 작품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11명(5.6%)이었다. 경제계로 진출한 11명(5.6%)은 기업 홍보실 같은 곳에서 근무했고 개인사업(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8명(4.1%) 있었다. 시민사회단체 임원이나 활동가는 3명(1.5%)이었으며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3명(1.5%) 있었다. 퇴직 기자들의 현직을 각 신문사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는 인터넷신문으로의 이동이 많은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행정계(26.3%) 비율이 인터넷신문(24.6%)보다 다소 높았다. <대전일보>는 지역 종이

7) <동양뉴스통신>은 대전에 본사를 둔 민영 뉴스통신사로 2001년 등록해 서울취재본부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본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활동하는 기자도 있었다.

8) 대학에서 근무하지만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업무를 하는 1명은 행정계에 포함시켰다.

표 4. 퇴직 기자들의 현직

(단위: 명(%))

구 분	지역종이	중앙일간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행정	정계	학계
대전일보	6(9.0)	4(6.0)	16(23.9)	2(3.0)	11(16.4)	8(11.9)	7(10.4)
중도일보	3(4.2)	1(1.4)	17(23.9)	3(4.2)	11(15.5)	10(14.1)	5(7.0)
충청투데이	2(3.5)	-	14(24.6)	4(7.0)	15(26.3)	6(10.5)	2(3.5)
계	11(5.6)	5(2.6)	47(24.1)	9(4.6)	37(19.0)	24(12.3)	14(7.2)

구 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자영업	프리랜서	무직	전체
대전일보	4(6.0)	2(3.0)	1(1.5)	3(4.5)	3(4.5)	-	67(100.0)
중도일보	5(7.0)	6(8.5)	1(1.4)	5(7.0)	3(4.2)	1(1.4)	71(100.0)
충청투데이	2(3.5)	4(7.0)	1(1.8)	-	5(8.8)	2(3.5)	57(100.0)
계	11(5.6)	12(6.2)	3(1.5)	8(4.1)	11(5.6)	3(1.5)	195(100.0)

신문과 중앙일간지 등 동종 종이신문으로의 이동이, <중도일보>는 정계 진출이 여타 신문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들의 직업분포는 <신문과 방송>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정관계로 옮긴 기자가 19.5%로 가장 많았다(정대필, 2008, 23쪽). 이 연구에서는 정치와 행정계로 이직한 사람을 합하면 31.3%(61명)였으며 이는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옮긴 32.3%(63명)와 비슷한 수치여서 기자들의 정치와 행정 분야로의 이동이 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의 이 같은 경력 이동으로 볼 때 언론의 폐쇄적 내부노동시장 장벽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동 시기 역시 평기자와 5년차 미만으로 급속히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노동시장이 내부승진이나 동종업계로의 이동에서 정치·행정·문화·경제·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으로 분화되는 모습이었다.

3) 경력 이동 원인

통상 평기자를 10년 이상 해야 차장으로 승진할 만큼 신문사 내부의 승진 문은 좁다.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등 상위직급으로 진출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지만 신문사 경영이 열악해지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승진 문턱이 좁아지기 때문에 40대 중후반에 부장급 데스크가 되고 나면 신문사에 계속 남을지, 광고와 마케팅 같은 신문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신문이나 타 직종으로 이직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F, H기자).

설문응답자 195명 중 61.0%(119명)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퇴직자였고 34.9%(68명)는 경영난과 구조조정 등 내외부적 영향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었다. 정년 퇴직자는 4.1%인 8명에 불과했다. <대전일보>의 자발적 퇴직자(80.6%)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투데이> 50.9%(29명), <중도일보> 50.7%(36명)였다.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에 비자발적 퇴직자가 많은 것은 신문의 휴간과 경영난, 노사갈등 때문이었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퇴사 이유는 보수·복지 미흡(31.8%, 62명)이었으며 구조조정 등 경영위기(17.4%, 34명), 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 승진 등 인사문제가 각각 4.6%(9명)였다. 정년퇴직(4.1%, 8명)과 광고 및 영업활동에 따른 부담(3.6%, 7명)은 많지 않았고 많은 업무량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람은 195명 중 2명(1.0%)에 불과했다. 과도한 업무로 퇴사했다는 기자가 2명으로 적은 이유는 설문조사 문항에서 퇴사 이유를 한 가지만 꼽도록 했기 때문인데 심층인터뷰에서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 기자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했다(B, C, D기자). 이들은 과거 다니던 종이신문에 비해 현재 직장에서의 기사 작성 건수와 업무량이 월등히 많다고 했다. 선행연구(김영옥 외, 2013; 박소라·이창현·황용석, 2001; 정승호·박선희, 2007)에서도 인터넷신문 기자들의 업무량이 종이신문 기자보다 많았으며 지역신문 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전국지 기자보다 많았다. <표 5>는 기자들의 퇴사 이유다.

기자들의 퇴사 이유가 신문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대전일보>는 미래비전 부재를,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는 보수·복지 미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도일보>는 취재

표 5. 기자들의 퇴사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수복지미흡	미래비전부재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성취감부재
대전일보	18(26.9)	29(43.3)	5(7.5)	2(3.0)	6(9.0)
중도일보	21(29.6)	15(21.1)	19(26.8)	6(8.5)	2(2.8)
충청투데이	23(40.4)	10(17.5)	10(17.5)	2(3.5)	1(1.8)
계	62(31.8)	54(27.7)	34(17.4)	10(5.1)	9(4.6)

구분	많은 업무량	영업활동부담	인사문제	정년	계
대전일보	1(1.5)	1(1.5)	2(3.0)	3(4.5)	67(100.0)
중도일보	-	2(2.8)	3(4.2)	3(4.2)	71(100.0)
충청투데이	1(1.8)	4(7.0)	4(7.0)	2(3.5)	57(100.0)
계	2(1.0)	7(3.6)	9(4.6)	8(4.1)	195(100.0)

보도활동 제약(언론인으로서의 자율성 감소)이 타 신문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를 시민단체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중도일보>는 김학용 주필이 13년 간 써온 <신목민학> 칼럼을 갑자기 중단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중도일보의 <신목민학> 중단 이유를 밝혀라’는 성명⁹⁾을 냈지만 압력의 당사자로 지목된 대전시와 <중도일보>의 해명은 없었고 결국 김 주필은 23년 간 근무한 신문을 떠났다. 이에 대해 심층인터뷰에서는 “건설자본 아래에 있는 지역신문이 권력을 비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주는 어떤 식으로든 자치단체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사업에 혜택을 보려고 하니 기자들이 소신껏 취재보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D기자)고 말해 취재보도활동 제약이 지역신문 기자들의 이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투데이>는 광고와 영업활동 부담, 승진 등 인사문제가 각 7.0%(4명)로 다른 신문보다 많았는데 심층인터뷰에서는 <충청투데이>가 타 신문에 비해 광고와 영업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C, J기자). 2014년 11월 28일 대전지역 기업인 타이어뱅크는 지역신문 1면에 “충청투데이의 언론 횡포로 33년 정들었던 대전을 떠나겠다”는 광고를 실었는데¹⁰⁾ <충청투데이>의 광고협찬 요구를 거절하자 4회에 걸쳐 1면과 3면에 비판 기사를 집중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대전시와 상공회의소 등이 나서 타이어뱅크는 본사의 서울이전을 한 달 만에 철회했지만 <충청투데이>는 지역에서 크게 비난을 받았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도 넘은 충청투데이 보복 보도 더 이상 방치할 일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지역 언론의 윤리 강화를 주문했다.¹¹⁾

심층인터뷰에서는 종이신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급여와 처우가 형편없고 미래비전이 보이지 않아 빨리 신문을 떠나는 게 최선”(C기자)이며 “정년이 55세인데 노후는 고사하고 빈손으로 회사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M기자)는 토로였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떠난 일부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미련과 함께 기자를 여전히 전망의 대상으로 여겼다(W기자). 취재보도활동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기자들 역시 “기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첫 입사한 신문에서 퇴직 때까지 글을 쓰고 싶어”(D기자) 했고 “기자로서의

9)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12). 중도일보의 <신목민학> 중단 이유를 밝혀라. (성명서). URL: <http://www.acro.or.kr>

10) 디트뉴스24 (2014. 12. 2). ‘타이어뱅크’로 본 지역언론의 현실. URL: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71599>

11)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12. 1). 도 넘은 충청투데이 보복 보도 더 이상 방치할 일 아니다. (성명서). URL: <http://www.acro.or.kr>

표 6. 기자들의 이직 계기

(단위: 명(%))

구분	직장상사 주변인소개	출입처 연관성	출신지역 등 지연	고교·대학 등 학연	대학원 등 전문성	공채 시험	기타	전체
대전일보	16(23.9)	19(28.4)	10(14.9)	10(14.9)	2(3.0)	3(4.5)	7(10.4)	67(100.0)
중도일보	18(25.4)	14(19.7)	16(22.5)	5(7.0)	6(8.5)	10(14.1)	2(2.8)	71(100.0)
충청투데이	17(29.8)	15(26.3)	11(19.3)	4(7.0)	3(5.3)	6(10.5)	1(1.8)	57(100.0)
계	51(26.2)	48(24.6)	37(18.9)	19(9.7)	11(5.6)	19(9.7)	10(5.1)	195(100.0)

자존심을 한 신문에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 아쉬움”(A기자)도 보였다.

기자들의 이직 계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줄’ 같은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표 6>에서 보듯 기자들은 이직을 위해 스스로 대학원과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강화(5.6%)하거나 공채 등 시험을 준비(9.7%)하기보다는 직장상사와 주변인 소개(26.2%), 출입처 업무와의 연관성(24.6%), 출신지역 등 지연(18.9%), 출신고교 및 대학 등 학연(9.7%) 등을 더 많이 이용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이직에 ‘연줄’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너와 동향이 라 해당신문에 가게 됐고”(C기자) 공무원으로 이직한 배경도 “모시는 정치인이 고향 선배 라 선거를 돕게 됐으며 당선 후 공직에도 진출”(N기자)했다. 이런 모습은 정치계로 이직한 경우 더욱 심했는데 “해당 정치인과 기자시절부터 인연이 있거나 동향, 고교 또는 대학 동문 등 지연과 학연이 작용하지 않고는 정치라는 한배를 타기 어렵고 고향, 학교 같은 연줄 이 닿지 않으면 출입기자 시절 코드가 아주 잘 맞았던 사람인 경우”(H기자)였다.

퇴직기자들의 현직과 이직 계기를 교차 분석한 <표 7>은 기자들이 출입처를 경력 이동의 발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앙일간지로의 이동에 출입처 업무 연관성(80%)이 월등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계, 행정계로의 이동에도 직장상사 및 주변인 소개, 출입처가 이직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41.7%)와 학계(28.6%)로의 이동에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직 계기가 되었다.

기자들은 출입처에 오랫동안 드나들면서 기관단체장은 물론 담당자들과 친분을 쌓은 결과 채용정보를 알게 되거나 최종선발에서 혜택을 받았다(M, O, R, S기자). 설문조사에서는 공채 등 시험을 통해 이직했다는 대답이 9.7%(19명)였지만 인터뷰에서는 “형식상 시험을 거치지만 실제로는 내정이 대부분으로 원서를 내기 전 시장이나 구청장 등 기관장과 사전협의가 이뤄진다”(C기자)고 했다. 대학원과 자격증 등 전문성(5.6%)을 살려 이직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입사 전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해당 분야에 필요

표 7. 현직과 이직계기 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주변소개	출입처	지연	학연	전문성	공채	기타	계
지역종이	3(27.3)	2(18.2)	3(27.3)	3(27.3)	-	-	-	11(5.6)
중앙일간	-	4(80.0)	-	-	-	1(20.0)	-	5(2.6)
인터넷신문	13(27.7)	6(12.8)	15(31.9)	5(10.6)	1(2.1)	5(10.6)	2(4.3)	47(24.1)
뉴스통신사	1(11.1)	6(66.7)	2(22.2)	-	-	-	-	9(4.6)
행정	14(37.8)	13(35.1)	-	1(2.7)	1(2.7)	8(21.6)	-	37(19.0)
정계	9(37.5)	8(33.3)	3(12.5)	3(12.5)	-	-	1(4.2)	24(12.3)
학계	2(14.3)	1(7.1)	1(7.1)	2(14.3)	4(28.6)	2(14.3)	2(14.3)	14(7.2)
경제계	3(27.3)	3(27.3)	3(27.3)	-	1(9.1)	1(9.1)	-	11(5.6)
문화예술계	2(16.7)	1(8.3)	1(8.3)	1(8.3)	5(41.7)	1(8.3)	1(8.3)	12(6.2)
시민단체	-	1(33.3)	1(33.3)	-	-	-	1(33.3)	3(1.5)
자영업	4(50.0)	-	1(12.5)	1(12.5)	-	-	2(25.0)	8(4.1)
프리랜서	-	2(18.2)	3(27.3)	3(27.3)	-	1(9.1)	2(18.2)	11(5.6)
무직	-	1(33.3)	2(66.7)	-	-	-	-	3(1.5)
계	51(26.2)	48(24.6)	37(18.9)	19(9.7)	11(5.6)	19(9.7)	10(5.1)	195(100.0)

한 자격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자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이직한 경우는 드물었다.

기자들의 퇴사 이유와 이직 계기를 통해 경영난이 극심한 지역 신문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노사갈등과 경영난을 겪으며 내부노동시장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약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외부노동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언론인의 타 직업으로의 이동을 강화시켜 언론시장 전체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견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자들의 경력 이동에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같은 사회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주 출입처는 경력 이동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노동시장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신문사의 역사나 시장 내 위상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절화 정도가 달랐는데 과거 '정·경·사(정치, 경제, 사회부)' 부서가 조직의 핵심이었다면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행정의 역할이 커져 '정치·행정'부서를 거친 기자들의 경력 이동이 빠르게 증가했다.

5. 논의와 결론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이 왜 신문을 떠났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지역신문을 퇴직한 기자들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이유로, 어디서 어디로 경력 이동해 현재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를 이직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이동 양상과 원인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기자들은 첫 입사한 신문에서 평균 10년 4개월을 근무했으며 평균 16년 5개월이 되어서는 아예 종이신문을 떠났다. 이들이 신문을 그만둔 이유는 보수·복지 미흡이 가장 컸으며 미래비전 부재, 구조조정 등 경영위기, 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도 원인이 되었다. 이는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의 신문·방송·통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과도 유사하다. 특히 지역신문 기자(연봉 2797만 원)의 급여 수준은 전국종합일간지(연봉 4934만 원)나 인터넷신문 기자(연봉 3161만 원)에 비해서도 낮고¹²⁾ <대전일보> 기자의 2010년 평균 연봉이 2858만 원¹³⁾일 정도로 열악해 보수와 복지 미흡 같은 현실적 이유와 미래비전 부재 같은 불안감으로 기자들이 언론현장을 떠나고 있었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인터넷신문이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무원 등 행정계로의 진출과 정치인 및 정당 대변인, 보좌관 등 정계가 뒤를 이었다. 학계, 문화예술계, 프리랜서, 경제계, 자영업, 시민단체 등 직업분포가 다양해져 신문사 내부에서 승진하거나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양상과 원인을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첫째, 언론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자들의 정치·행정 분야로의 이동이 언론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세 번째는 기자들의 전문직업인주의가 붕괴돼 직업정체성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자들이 정치·행정·경제·학계·문화계 등 이종부문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언론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업무성격이 다른 학계·문화계·자영업·프리랜서·시민단체로의 이동은 기자들의 직업적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12) 기자들의 급여수준은 매체유형과 근무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전국종합일간지 기자의 연봉이 4934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일간지 기자가 2797만 원으로 매체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터넷신문 기자의 연봉은 3161만 원, 뉴스통신사 기자는 5002만 원이었으며 연봉 4896만 원을 받는 서울지역 기자들이 3782만 원을 받는 지역기자들보다 1114만 원을 더 받았다(오슬기·배정근·김위근, 2013, 463쪽).

13) 주은수 (2011. 7. 26). 신문사 연봉, 지난해 1백만 원 상승. <시스저널>. URL: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2655>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진입이나 경력이동 과정이 단순한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비메이저에서 메이저로, 지방지에서 중앙지로 이동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행정·경제·문화·교육·시민단체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경력 이동에 활용한 것은 숙련기술과 전략, 구직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맥·인맥 같은 사회자본이었다. 연출과 출입처를 경력 이동의 발판으로 삼는 기자들은 정치를 출입하다가 정계로 진출했고 행정 분야 출입기자는 기관의 홍보담당자로, 경제를 맡았던 기자는 기업 홍보실로, 대학 출입기자는 대학 홍보실로 이동하는 식이었다. 정치 분야 출입기자는 정치인의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 선거에 당선되면 자치단체의 홍보담당자가 되기도 했다. 신문 내에서의 승진과 출입처 배정에 출신학교와 출신지, 출신 부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기자들이 직업을 옮길 때에도 학맥·인맥, 출입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같은 지역언론의 내부노동시장 약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돼 타 조직과의 순환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의 경력 이동이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주로 이뤄지다보니 학맥·인맥·출입처 중심으로 상징되는 신문사 조직 내에서의 승진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언론노동시장은 더 이질적이고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번째는 기자들의 이동이 지역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대목이다. 기자들이 언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계·문화예술계·프리랜서 등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언론 → 정치 → 언론’을 옮겨 다님으로써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훼손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 연구의 설문응답자 195명 가운데서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정치인의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갔다가 낙선 후 인터넷신문 기자로 복귀한 사람이 3명 있었다.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때 전·현직 언론인을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앞 다투어 영입함에 따라 기자들의 정치 분야로의 이동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이 단체장에 당선되면 수행했던 대변인이나 홍보담당자를 기관의 비서실 혹은 홍보(공보)실로 데려감으로써 정치와 행정을 오가는 기자 출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청이나 구청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다음 선거 때 당선되면 공무원을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신문으로 돌아야 하지 않겠느냐”(M, N기자)고 했고 모 지역신문에서는 “사주가 정치담당 기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대변인을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만일 선거에서 질 경우 신문사로 돌아오라”(A기자)고 할 정도로 기자 개인뿐 아니라 신문 소유주까지 가세한 조직적 권연

유착 사례도 보였다.

언론 선후배가 자치단체나 정치권 홍보담당자로 대거 포진함으로써 현직 기자들은 암묵적으로 기사에 영향을 받았고, 전직기자들이 잘 포장해 던져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씌으로써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지적을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독자들에게는 획일적 뉴스가 제공돼 주민들의 알권리까지 침해받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전문직업인주의 붕괴와 이로 인한 직업정체성의 훼손 문제다. 기자라는 직업을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는 기자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며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했기 때문이며 기자들 역시 신문 소유주나 외부 간섭 없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가지고 취재활동을 하길 원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자들의 전문직업인 의식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언론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발판으로 삼는 모습이 드러났다. 기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대학에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정치인이나 기관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본인뿐 아니라 형제, 자녀, 부인까지도 취업시키는 등 기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민원과 청탁을 일삼았다. 전문직업인주의의 붕괴는 정치·행정 분야로 진출한 사람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났는데 보수·복지 등에서의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감시·비판 없이 매일 비슷한 홍보자료를 쓰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직업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기자들은 다시 현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은 물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마저 상실해 올바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인이 정치·행정 분야로 대거 경력 이동을 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자 출신들이 권력의 '홍보맨'이 돼 '언론관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자 본인의 직업정체성 상실은 물론이고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와 함께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광역시 인구 151만 명, 세종특별자치시 21만 명, 충청남도 207만 명, 충청북도 158만 명 등 2016년 6월 기준 대전·세종·충남북의 인구는 539만여 명이다. <대전일보>의 2014년 말 한국ABC협회 인증 유료부수는 2만 8098부, <중도일보> 1만 2145부, <충청투데이> 1만 9641부로 세 신문의 유료부수를 모두 합해도 5만 9884부여서 대전·세종·충남북 인구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 주민 알권리 실현과 공론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신문을 떠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그들의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기

자들의 경력 이동이 지역신문 저널리즘의 역할과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전통 저널리즘의 직업적 분화를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기자들의 이직이 직업유동성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외연확대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며 변질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신문의 위상 저하는 물론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며 경력 이동을 한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보수·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 등으로 이직을 꿈꾸는 기자도 있지만 묵묵히 취재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들의 경력 이동 양태와 그 안에 담긴 함의를 탐색한 이 연구가 지역언론과 지역신문 기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학계에 지역신문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권혁남 (1994). 지역신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한국언론학보>, 31호, 5-27.
- 김경모·신의경 (2013).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와 전문직주의 현실: 반성적 시론. <언론과학연구>, 13권 2호, 41-84.
- 김남석 (2001). 80년대 후반 신문산업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구조변화를 위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5-61.
- 김성재 (2005). 언론노동의 현실과 지역 언론인의 정체성.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105-140.
- 김세은 (2003, 12월). <한국 사회와 언론인: '언론'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의 문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세은 (2010). 해직 그리고 그 이후... 해직 언론인의 삶과 직업을 통해 본 한국 현대 언론사의 재구성. <언론과 사회>, 18권 4호, 158-208.
- 김영욱·김영주·김위근·최일도·황치성·김세은·김춘식·문종대 (2013). <한국의 뉴스미디어 201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종찬 (2003). 언론인 조기퇴출의 막전막후. <관훈저널>, 통권 88호, 28-34.
- 김창희 (2002). <대전지역 기자들의 근무여건 및 직업만족도 조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궁협 (2002, 4월). <지역 언론시장의 붕괴와 지역 언론인의 정체성>. 한국언론학회 쟁점과 토론. 9-28.
- 류기락 (2009). 일자리 이동과 내부노동시장: 한국노동패널(1998~2005)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권 4호, 37-76.
- 박소라·이창현·황용석 (2001). <한국의 기자노동: 취재기자의 업무활동 구성과 조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박진우·송현주 (2012).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49-68.
- 반영환 (2001). <언론인의 집단차원 노후대책> 퇴직 언론인을 어떻게 도울까?: 현황과 그 대책을 알아본다. <관훈저널> 82호, 151-160.
- 배정근 (201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업무량 증가 심화. <신문과 방송>, 500호, 21-30.
- 송호근 (2002). 기업조직과 고용체계의 구조변화. <경제와 사회>, 56호, 161-190.
- 신연숙 (2009). <신문기자의 직업경로 패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승혜 (2006). 한국 기자를 말한다: 기자 위상 및 직업 만족도에 대한 기자의식 조사. <신문과 방송>, 426호, 8-20.
- 오슬기·배정근·김위근 (2013). <한국의 언론인 201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윤철수 (2007, 6월). <지역신문 기자들은 어떠한 기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인력구조 변화, 기자정체성 중심으로>. 언론개혁제주포럼 2007년도 상반기 세미나. 제주: 상공회의소.

- 이상기 (2008). 이직하는 기자들 : 기자 의식 조사 직업만족도와 이직 의향. <신문과 방송>, 449호, 34-44.
- 이승선 (2014). 지방자치단체의 언론대응 방식 특성과 함의 : 대전광역시 2012~2013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25권 2호, 521-547.
- 이정훈·김균 (2006). 한국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9-88.
- 이현택 (2013). <특집> 종편 출범 이후 언론사 채용제도 변화: 경력 같은 신입 늘고 나이 장벽도 무너져. <신문과 방송>, 507호, 5-10.
- 이희성 (2013).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지출과 보도경향 분석: 지역 언론의 시정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2호, 295-328.
- 임영호 (2008). 방송 프로듀서와 기자의 커리어 경로 패턴과 규정요인. <방송연구>, 여름호, 325-351.
- 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한국 일간지의 언론인의 커리어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61-89.
- 임영호·김은미 (2006). 사회자본이 방송경력 기자의 직장 이동에 끼치는 영향: 연고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1호, 360-403.
- 임현선 (2009). <기자의 정제진출에 대한 현직 기자들의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하용 (2004). 한국 언론인의 조직 내 승진요인에 관한 연구: 편집국과 보도국의 분석. <한국방송학보>, 18권 2호, 36-67.
- 장행훈 (2003). 기자들 왜 신문사를 떠나는가. <신문과 방송>, 393호, 66-70.
- 정대필 (2008). 떠나는 기자들 : 2007년 이후 이직·전직 기자 205명 분석. <신문과 방송>, 449호, 22-27.
- 정승호·박선희 (2007).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활동 및 노동여건, 언론사내 조직위상의 변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비교분석. <언론정보연구>, 43권 2호, 37-69.
- 정이환 (2013). 노동시장의 사회학적 연구의 쟁점. <경제와 사회>, 100호, 94-113.
- 정이환·전병유 (2001). 1990년대 한국 임금구조의 변화: 내부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있는가. <경제와 사회>, 52호, 156-183.
- 정태인 (1996, 12월). <한국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경제사회학적 관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72-177.
- 최낙진 (2007, 6월). <지역신문기자들의 전직·전업 현황과 그 특성>. 언론개혁제주포럼 2007년도 상반기 세미나. 제주: 상공회의소.
- 최석현·안동환 (2012). 한국 신문언론노동의 숙련구조 변동과 전문직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84-108.

최이숙 (2009). 산업화 시기(1961~1987) 성별화된 언론노동시장과 여성언론인의 경력 이동. <한국 언론학보>, 53권 1호, 133-160.

현택수·정선기·이상호·홍성민 (1998).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Doeringer, P. B., & Piore, M. J. (1971). *Internal labou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E. Sharpe.

Johnston, J. W., Slawski, E. J., & Bowman, W. W. (1976). *The news people: A sociological portrait of American journalists and their work*.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avalko, R. M. (1988).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2nd ed.). Itaska, IL: F.E. Peacock.

Schwed, W. W. (1981). Hiring, promotion, salary, longevity trends chartered at dail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1), 3-8.

Trayes, E. J. (1976). Hiring and promotion practices: A survey of 52 APM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53, 540-544.

Weaver, D. H., & Wilhoit, G. C. (1991). *The American journalist: A portrait of U.S. news people and their work* (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Wilensky, H. L. (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137-158.

투고일자: 2016. 3. 29. 게재확정일자: 2016. 7. 18. 최종수정일자: 2016. 7. 22.

A Study on the Career Mobility of Reporters at Local Newspapers

Yeon Hee Lim

Lecture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local press and changes to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reporters through the job mobility of reporters at local newspapers. The study examined what reasons the reporters had when they retired from one of three paper newspapers in Daejeon, where they moved to, and how their career mobility was. Some of them remained in the field of journalism including paper newspapers of the same kind and Internet newspapers, and others moved to various areas including politics, administration, academy, economy, and culture and art. The biggest number of them said they left their old paper newspapers because of poor wages and welfare benefits and absence of future visions. Their decision of leaving their old paper newspapers was also influenced by restructuring, restrictions to coverage and reporting, and great workload. Before the IMF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the press labor market was a typical internal labor market with the practitioners joining a newspaper in open recruitment and climbing up the promotion ladder from a common reporter through Deputy Head and Head of a department to Director of a bureau. The emergence of new media and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newspaper corporations were currently making the internal labor market worse. Reporters made active use of social capital such as regionalism, alumni ties, and news beats rather than changing jobs by increasing their professionalism through self-development, thus causing side effects including the weakened supervision and criticism functions of local newspapers and damaging their occupational identity as reporters.

KEYWORDS Local Newspaper, Reporter, Career Mobility, Labor Market, Occupational Identity